

## ■ 2026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신작 제작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신작 제작
- 회의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 11월 27일(목) 14:00
  - 2025년 12월 3일(수) 10: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공혜진, 김재리, 김정연, 김화용, 남지수, 박창민, 양희진, 엄현희, 이윤경, 장성은

2026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고 우수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공연 전 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및 복합장르(공연·퍼포먼스와 결합한 전시 또는 공연·퍼포먼스와 결합한 그림책 발간 등)를 통합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신작 제작' 유형의 총 지원건수는 229건이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극·뮤지컬 103건, 무용 19건, 음악 46건, 전통예술 18건, 복합 43건이 지원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행정결격 2건을 제외한 총 227건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장르별 2인으로 구성된 총 10인의 심의위원은 두 개 조로 나뉘어 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서류심의 및 채점을 진행한 뒤 대면회의를 통해 2차 인터뷰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의는 장르의 구분 없이 통합심의로 진행하였고, 해당 장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차 심의에서는 신작 제작을 위한 창작의 방향성과 동시대 예술로서의 문제의식, 향유 대상에 대한 연구와 접근 방법의 명확성, 작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차 심의는 10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15분 내외의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 제출된 지원신청서에 서술된 맥락이 예술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체가 구현하려는 예술세계가 독창적인지, 세부적인 작품 구현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예산항목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향유 관객층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사업으로서 적절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등을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신작 제작' 유형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은 관심과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로서 동시대적 정체성을 갖고, 향유 대상의 특성과 감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익숙한 소재를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례들은, 이미 많이 시도되고 있는 창작방식을 재차 반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술향유 관객층을 구체적으로 인식, 설정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은 그 특성상 타깃 관객층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연출 콘셉트, 공연 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참신한 소재와 창의적인 시도가 돋보이고, 예술향유 대상에 대한 창작진의 세심한 고려가 수반되었으며, 사업을 구체화하는 계획과 역량이 상당히 인정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어린이청소년 관객의 예술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예술단체들을 균형 있게 선정하고자 심사숙고하였으나 지역 예술단체의 선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예술가와 단체에게는 심사결과가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최종심의 과정에서 지역 어린이 청소년 예술향유 기회제공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예술가 개인과 단체의 작업을 넘어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어린이청소년 예술창작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예술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6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2차 제작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2차 제작
- 회의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 11월 27일(목) 14:00
  - 2025년 12월 4일(목) 10: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공혜진, 김재리, 김정연, 김화용, 남지수, 박창민, 양희진, 엄현희, 이윤경, 장성은

2026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신작 및 우수 레퍼토리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2차 제작' 지원은 우수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기 직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작품 활동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 변경 사항은 이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올해 2차 제작 유형의 지원 건수는 총 170건이며, 연극·뮤지컬 101건, 무용 7건, 음악 36건, 전통예술 12건, 복합 14건이 지원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결격 5건을 제외한 총 165건을 심의 대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지원사업의 심의는 연극·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음악, 문화일반 장르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르별로 두 명씩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서류심하는 두 개 조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2차 인터뷰 심의 및 최종 선정을 위한 토론은 심의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2차 제작' 지원의 심의 기준 중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예술 향유 기회 확대 노력'이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으며, 심의에서도 '2차 제작' 계획의 목표 설정과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관객의 모객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계획 등도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장르가 통합해 함께 이뤄지는 심의의 특성상 해당 분야 심의위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심사위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작품들을 우선 선정하고 이견이 있는 작품들의 경우에 토론을 거쳐 전원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선정작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의 특성상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향하는, 창작자의 고민과 그들과 만나려는 목적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의 2차 제작 지원에서는 기후위기, 사회적 재난, 비인간 주체 등 동시대적 이슈를 창작 주제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청소년 대상 작품들에서는 워크숍 기반의 공동창작을 통해 청소년의 경험과 목소리를 작품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수동적 향유대상이 아닌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예술적으로 접근하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작품을 향유하는 대상에게 이러한 창작자의 노력이 흥미롭게 다가가며, 의미있는 예술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 방법론이 명확하고 목표가 분명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예술단체가 지속적

으로 고민해 온 방향과 '2차 제작' 지원의 연계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관객 모객의 문제와 이를 위한 전략, 작품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고민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2차 제작' 지원은 안정적인 레퍼토리로의 진입 직전 단계의 지원으로써 활동 이력이 짧은 작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작 제작' 분야와의 차이점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을 만들어 온 단체가 사업의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운영 능력을 가지며,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학교 등을 찾아가는 공연이 아닌, 극장 공간 및 무대로 계획된 공간에서 관객과 만나는 작품들인 만큼,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 등도 선정된 단체들의 장점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지원자들이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에 지원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애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미래 세대'를 궁금해하고, 예술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모두의 마음들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